

건설 경기 '꽁꽁'... 자격증 소지자 '꽁꽁'

고금리·소비심리 위축에 불황... 광주·전남 297곳 폐업

'취업 프리패스' 자격증 소지자도 수요 없어 취업 어려워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이력서 낼 곳 찾기가 어렵네요..." 취업준비생 임현택(32)씨는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임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던 차에 건설안전기사가 '취업 프리패스'라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1년 간의 수험생활을 거쳐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임씨는 1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임씨가 취득한 건설안전기사는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강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그 필요성이 늘었지만, 정작 수요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22년 제1회 건설안전기사 지원자는 197명, 2회차 153명으로 100명대에 불과했으나,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예고된 연말 시험(4회)에서 지원자가 2배 가까운 35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제 1회 시험 지원자도 297명, 2회 지원자도 310명으로 과거에 비해 인기가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이 없어 자격증 취득자들 사이에서는 취업을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임씨는 "법이 강화돼 필수 인력으로 뽑혔지만, 건설 현장 자체가 없어 사람 뽑는 회사를 찾기 어렵다"며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아쉬움이 크다"

고훈을 쉬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인 미장 기능사 이성민(36)씨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광주에 살고있는 김씨는 올해의 절반 이상을 전남은커녕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냈다. 심지어 두달 전 결혼한 새신랑이지만 신혼집보다 모텔방에서 보낸 기간이 더 많을 정도다.

김씨는 "광주와 전남에 건설 현장이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타지에서 생활 중이다. 서울과 경기는 그나마 현장이 있어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건설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국내외적 리스크로 인한 고금리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황에 직면했는데, 이로 인해 폐업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한편, 비교적 상황이 괜찮은 회사들은 관세에 돌입하면서 인력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해 전국에서 총 520곳의 종합 공사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는 종합 공사업체 22곳, 전남은 26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 수가 지난 362곳인 것을 감안하면 급증한 수치다. 아직 올해가 한 달 가량 더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공사업체는 전국적으로 2692곳이 문을 닫았고 광주에서는 65곳 전남 184곳이 폐업했다.

문을 닫은 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도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광주에서 착공한 주택 수는 5411호로 전년(5700호) 보다 5.1% 감소했다. 10년 평균인 9232호 보다는 41.4% 줄어든 수

였다.

전남도 올해 10월까지 7532호가 착공하면서 전년(1만3626호)보다 38.5% 줄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예년만 하더라도 건설 현장이 전국적으로 50곳 정도는 됐다. 준공이 되면 새로운 현장에서 착공해야 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 올해 들어 현장 수가 40곳을 밑돌고 있다"며 "관급과 사급을 가리지 않고 발주가 줄어 전반적인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채용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경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불황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금융비용 증가로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특히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창업성장 사다리 펀드 3억원 출자

"일자리 창출·경제발전 기여"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창업성장 사다리펀드에 출자금을 내놨다.

광주은행은 (재)광주창조경제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성장사다리펀드 Seed 1호(제5호 G-IN 개인투자조합)'에 LP출자자(유한책임조합원) 자격으로 3억원을 출자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제5호 G-IN 개인투자조합'은 창업 3년 미만의 지역 내 유망한 중소기업 중 사업성과 독창적인 아이템을 갖춘 기업을 선발하고 투자,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투자조합의 결성목표는 총 10억원이며, 광주은행은 총 목표액 중 5억원에 해당하는 LP금액 중 3억원을 지방은행 최초로 출자했다.

이에 광주은행은 지난달 2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11월 광주창업포럼'에서 (재)광주창조경제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지난 2021년,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지역경제 안착을 위해 260억원을 출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GM 새 대표이사에 윤몽현 전 현대차 부사장

윤몽현(사진) 전(前) 현대차 부사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윤몽현 신임 대표이사는 6일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대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윤 대표이사는 7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2년간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이끈다.

강진 출신인 윤 대표이사는 조선대부속고등학교와 서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상무와 전무를 거쳐 지난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경영전략실장과 기획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대차 터키법인과 중국법인의 총괄경영자를 역임했다.



정책과 기획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해외 경험을 쌓은 자동차 전문가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윤 대표는 첫 임정으로 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창립과 함께 1~2대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광태 대표는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4년여 동안의 임기를 마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술 탈취 근절...하도급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중소기업계 성명서 발표

중소기업계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는 납품당사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천827억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술 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술어린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정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회천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 달성탑'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12월 정례회에서 회천농협(조합장 정각상)이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 달성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상호금융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들의 건전경영과 내실 성장을 유도하고, 수상 기회를 확대해 농축협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시상제도다.

회천농협은 지난 2020년 예수금 700억 원을 달성한 후 3년여 만에 예수금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조합장님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의미있는 성과"라며 "상호금융사업의 확대를 통해 조합원들과 고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금융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효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성금

효성은 6일 서울 마포구청을 찾아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효성은 마포구 관내 취약계층 1500세대에 가구당 10kg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사랑의 김장김치'는 2007년부터 17년간 이어져 왔으며 효성은 지금까지 2만2500여 세대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했었다.

이날 효성은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 400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마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5.38(+1.10)
↑ 코스닥	819.54(+6.16)
↓ 금리(국고채 3년)	3.463(-0.021)
↑ 환율(USD)	1313.10(+1.90)

광주경총-시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 협약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부회장 최호원 회장·오른쪽)는 지난 5일 광주시교육청과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청 교육감과 양진석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늘리기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직업계고·대학·지역기업과 협력해 추진 중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다.

특히 올해 지역 특화산업인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3개 핵심 분야(의료 헬스케어·AI 융복합·문화산업)를 추가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경총은 ▲지역 내 우수기업 발굴 및 기업 현장 교사 연계 지원 ▲핵심분야 심화교육과정 운영 ▲취·창업 박람회 운영 ▲혁신지구 취업자 우대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기술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현장체험 등 다양한 책임교육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